

# 대통령을 위한 촛불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촛**불은 규명되어야 할 연구대상이다. 지금 이 땅에서 지퍼지는 촛불의 양태는 정치행위로서는 전혀 새롭고 낮은 성격의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반전 촛불시위와도 다르고 1980년대 한국의 민주운동과도 다르다. 촛불이 실업자나 사회 불만자들의 반정부 운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낡은 시선들이 주동자를 찾고 사주하는 세력을 운위하고 이념성의 낙인을 찍으려 한다. 그런 구닥다리 공안대책 버전으로는 결코 촛불을 극복할 수 없다. 운동이 아닌데 운동권을 찾고, 이념이 아닌데 좌파를 떠올리니 대책이 설 수 있겠는가. 운동이라면 이념과 조직과 지속성이라는 3대 요소가 관건인데 촛불에서 대체 무슨 요소가 추적되는가. 촛불이 좌파 사회주의 이념의 발로라면 최소한의 강령이라도 존재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떤 테제가 거기 있었는가. 대상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이 된다.

## ‘폴리티컬 몹’ 형식 띤 집단지성

먼저 촛불의 형식을 보자. 그것은 모바일이다. 움직이고 유동하고 변화하고 진화한다. 정보학자 마누엘 카스텔이 말한 흐름을 의미한다. 이 때의 흐름은 권력의 흐름을 뜻한다. 종래의 권력이 장소로서 고착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권력은 온갖 첨단 디지털 기기로 무장하고 끝없이 유동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출발해 이른바 5대 과제로 진화한 상황이지만 그 역시 국면의 전개에 따라 확장과 소멸을 거듭할 것이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방향성을 명령할 수 없다. 오직 흐름이 지속될 뿐이다.

촛불의 또 다른 형식으로 코스튬 플레이와 플래시 몹을 들 수 있다. 옷과 놀이가 합쳐진 게 코스튬 플레이인데 집회자들의 옷은 미친소 의상에서 대통령의 얼굴까지 다양하다. 집회자들의 놀이는 비장한 구호에서 ‘공공칠빵 놀이’까지 종잡을 수 없다. 조금 전 물대포를 맞았던 사람이 뒷열의 친구들과 어울려 힙합댄스를 춘다. 관객과 배우가 따로 없어서 심지어는 진압경찰에게 노래를 청하고 물대포를 향해 “온수! 온수!”를 외친다. 촛불이 플래시 몹으로 보이는 점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 행동을 벌인다는 점이다. 불특정의 군중이 특정장소에 모여 동일한 행동을 하고 바로 흩어지는 행위가 플래시 몹이라면 촛불의 행위는 폴리티컬 몹이라고 이름 지어도 될 듯하다.

촛불의 성격은 웹 2.0 버전의 집단지성이다. 유저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광대역의 네트워크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내용은 엄청난 다수의 토론과정을 거쳐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낸다. 누구도 개인이 주장하고 분석한 내용물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애써 만든 동영상에도 ‘맘대로 퍼가세요’ 같은 문구가 대부분 따라붙는다. 촛불에서 집단지성은 가령 경찰의 물리력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부터 ‘명박산성’이라고 명명된 컨테이너 앞에 대응 스티로폼을 쌓느냐 마느냐로 7시간에 걸친 토의를 하기까지에 이른다. 모든 과정은 집단토론을 거치고 다음 단계로 진전된다. 따라서 중국 천안문 사태 때와 같은 히어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집단지성이 개미사회에서 찾아졌듯이 촛불 역시 참가자 하나하나의 무명의 개인으로 환원된다.

## 가치관의 충돌과 성장한 주권의식

도대체 촛불은 왜 일어났는가. 물론 어설픈 대미 협상이 기폭제가 되었지만 그것만이 이유였겠는가. 광우병 쇠고기가 아니었다면 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간의 사태진전으로 보아 대운하 추진에서든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든 또 어떤 돌출사안에서든 촛불은 일어났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 핵심적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가치관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분명히 국민은 '경제 재도약'을 약속한 후보에게 표를 주어 당선시켰다. 당선자는 본인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밝혔듯이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자 조급증에 빠졌다. 쇠고기 같은 작은 규모의 농축산물을 내주는 대신 자동차처럼 커다란 시장을 확보하면 모든 것이 양해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윤창출이 최우선 과제였지 검역주권이나 건강권 따위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통령은 장사 마인드로 국정에 임했는데 국민은 자존의 문제, 가치의 차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커다란 인식의 갭이 여기 있었다. 후보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1970~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을 두고 '열심히 일할 때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엄청난 과열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촛불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운동권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오늘날 유럽사회의 중심에 68혁명 세대 당사자와 그 후예들이 서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대통령은 깨닫지 못했다.

촛불이 일어난 또 하나 요인으로는 놀라게 성장한 주권의식을 들 수 있다. 나이 든 세대 중에는 아직도 대통령을 선출된 국왕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 분위기는 일변했다. 여론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 다수의 의견을 왜 대통령이 수행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었다. 그 결과물이 쇠줄로 묶어놓은 경찰버스나 명박산성이 웅변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고자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쳤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시위대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친다. 땀땀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면 결코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연행을 자처해 이른바 '닭장 투어'를 감행한 날도 있다. 그날 무려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호송차에 탔다. 집회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이 임명한 대리인으로 여겨질 뿐이다.

신장된 주권의식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과거에 반정부 시위대는 문제 제기자 역할에 자족했다. 문제해결의 영역은 정치권이나 전문가 집단의 몫이었다. DJ, YS 신화는 그래서 생겨났다. 하지만 촛불은 정치권이라는 대의 시스템에 대해 어

떠한 신뢰도 기대도 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스스로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목표를 정한다. 그렇다고 종래의 시민단체처럼 제도 영역의 권력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촛불은 스스로가 국가 자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직접 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개발과 인터넷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고대 그리스 이래 현대에 재등장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촛불은 새로운 실험이자 가능성

그렇다면 촛불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점은 규정이 대단히 어렵다. 찬찬히 최초의 시점으로 거슬러 가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에서 촛불이 점화됐다. 그것은 정책의 문제다. 다른 모든 사안도 결국 정책과 인사의 문제에 해당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한마디로 묶는다면 시장주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은 시장주의에, 신자유주의에, 세계화에 반하는 불꽃일까. 이것의 규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촛불 내에서도 이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정부의 과속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한·미 FTA 비준문제. 촛불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충돌한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할 양극화의 우려에 대해서는 촛불의 목소리가 일치한다. 따라서 FTA가 화급한 사안이라면 정부는 비준 동의를 앞세우기 전에 양극화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부시의 푸들'이라고까지 조롱 받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그 점 때문이었다. 민영화 반대도 학교 자율화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안들이다.

촛불은 새로운 현상이고 실험이며 가능성이다. 물대포로 끄려하거나 지쳐 나자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보다 진전된 사회로 나가려는 에너지를 부정하는 일이다. 집권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촛불의 흐름을 타야 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이라는 '장소'는 허락되지 않고 거대한 '흐름'만이 존재한다. 물러나라고 외치는 정치적 반대세력과 어떻게 한 흐름이 될 수 있을까.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정치적 상상력이다. 상상 속에 길이 있다. **SD**



글쓰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하다'의 자문위원 및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사칼럼집 '나는 왜 나여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데트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